

피 난 처

수년전 3월 13일은 의사로서의 내 생애에 무서운 시련이 있었던 날이었다. 간호원을 시켜서 불문과 2학년 여학생에게 주사를 놓았는데 불과 1,2분 사이에 환자의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고 동공이 확대되어 버렸다.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 등을 했지만 심장은 잠시 뛰다가 멈추곤 하였다.

약 한시간이 경과했다. 마취과 의사들은 거의 포기 상태였다. 전기치료는 마지막에 하는 것인데 4번이나 했어도 심장은 살아나지 않았다. 나는 지옥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다. 그런데 기적처럼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모두 다른 염려를 하게 되었다. 1시간 가까이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가 과연 뇌 손상 없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얼마 전 농과대학 교수 한 분이 이런 상태의 후유증으로 2년간을 대소변 못가리고 살다가 돌아가신 것을 보았었다. 그 교수님은 30분만에 깨어나셨는데도...

“하나님,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정상적으로 깨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 믿어야 한다는 마음의 소리가 있었다. 환자의 아버지는 먼 소재지의 장로님이셨다.

“제가 감당 못할 시험이거든 막아주십시오.” 이것이 그분의 기도였다. 의사를 원망하지도 않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셨다.

3월 15일 아침, 환자는 정신이 돌아왔다. 그러나 주사를 맞던 날 이전의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력 장애가 있어 물어본 말을 또 묻고 또 묻고 했다. 3월 16일은 더 많이 회복되었다. 프랑스어로 인사해 보라고 했으나 못했다. 주기도문은 처음부분을 자주 반복해 주면 외웠다. 3월 17일은 더 기억이 돌아왔다. 사건 하루 전날 기억까지 했다. 프랑스어로 인사해 보라니까 ‘봉쥬르’했다. 점점 더 회복되어 밥을 먹고 화장실도 다닌다. 웃으면서 “선생님, 저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다면서요? 퇴원하고도 찾아뵈러 오겠어요.” 라고 한다.

기도를 들으시고 태풍의 방향을 돌리시던 하나님께서 내게 은밀한 교육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교수니, 박사니, 전문의 자격이니 하는 딱지가 아무 힘도 없었다. 이런 것들은 사람 관계에서나 통용되는 것이지, 실제적인 힘은 하나도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힘이고 피난처였다.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이천년 교회생활'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2권 1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0년 4월23일
☎262-371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특시님대담에 주세요

때때로 우울하고 초조합니다.

Q)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왠지 불안하고 우울한 비감에 빠지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기도, 찬양, 교제하는 것들이 시들해지고 부부의대화, 자녀와의 만남도 귀찮아 집니다.

A) 성도님의 감정은 성령의 하시는 일은 아니고 다른 영같이 보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전 인간의 감성에 지배받던 때의 잔재인가 봅니다.

성도님처럼 좋지 않은 감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몰아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감성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면 성령께서 나의 감성을 지배하도록 영적으로 더 강하게 준비하여 무익한 정서가 아예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미리 대처하십시오. 신앙인은 비애의 감성에 의하여 살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존해서 삽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쳐서 작은 생각 하나, 감정 하나라도 주님께 굴복시켜야 합니다(고전 9:27. 살전 5:23-24)

성경은 초조감, 불안감, 우울감, 비애감등이 불신앙과 악령의 영향하에서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사울 왕의 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들을 제거하고 안정감, 즐거움, 평화와 같은 것을 가져다주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영적인 건강과 가정의 정서를 해치는 정서는 정신 위생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감성이 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여 무익한 정서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준비 없이 지내면 반드시 우울감이 다시 찾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활을 점검하셔서 혹시 너무 안일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신앙적인 면에 얼마나 시간을 가졌고 성경과 찬송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였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감을 물리치기 위해 일반적인 정서 생활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신앙생활보다 더 우위에 있다면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오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일 예 배

(부활주일)

“Calvary”
1절:예배만주. 1.3절:다같이

영 광 송
Gloria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 송
Hymn

150 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62 (부 활 절)

인 도 자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이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159 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지윤수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요한 20:11-31

아 동 부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부 부 성 가 대
Couple Choir

‘주님께 영광’ - G.F.Handel-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예수 부활

김성국 목사

설교후 기도
Prayer

찬 송
Hymn

155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이천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사항>
*개인과 가정:매일 1/2성경읽기, 가정예배
*교 회:화요새벽기도회
*선 교:결식아동 3배지원, 해외선교지원

<등록규정>
*3주간 예배,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30 pm	화요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7:30 pm(Adria)

교 회 소 식

-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헌금제도가 없습니다.
- 오늘은 야외친교관계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 야외친교
예배 후 tea time 없이 야외BBQ를 위해 함께 떠나겠습니다.
장소:Wendetholm Park(Orewa에서 약 6km)
- 달력
서울 갈보리교회 박준준 목사님께서 달력을 보내주셨습니다.
- 다음주일은...
*결식아동을 위한 ‘이삭줍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매월 마지막 주일)
- 교우소식
*지윤수, 김 효 집사 가정. 유학원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유학원’.
*김 효 성도. 사업차 한국방문키 위해 28일(금) 출국.
-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 도 제 목

- 1.아동,중고등,청년부 조직과 교사위해
- 2.예배당 사용(수요예배,새벽기도회)
- 3.교회사용 교섭위해

8.4월 교회력

- 2 성찬식. 9 강사초청 설교.
21(금) 성금요 예배
23 부활주일.야외친교
30 ‘이삭줍기’ 주일(매달 마지막 주일)

4월 예배위원

일자	안내 헌금	기 도	teatime봉사
2	한 건.변지웅	이 선 우	김성국.김효권
9	이영권.김영대	방 성 주	변지웅.이경석
16	이선우.조순정	신 선 숙	이선우.이영권
23	지윤수.김 효	지 윤 수	지윤수.최윤호
30	변지웅.신선숙	최 윤 호	한 건.이상욱